

# 사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고성군의 군정방향을 설명하고 읍면별 속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일간 계속된 강행군을 지친 기색 없이 감당하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하나라도 더 해결해주려고 애쓰는 황종국 군수의 열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5일간 진행된 이번 군정설명회 및 읍면별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는 굵직한 현안 위주의 건의가 대부분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인 배려 등에 대한 제기는 거의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주민들의 건의는 주로 마을에 교량을 새로 해 달라, 체육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건의는 마을이나 단체를 대표해서 제기한 것이겠으나, 과연 주민들이 이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라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많은 주민들은 오히려 군 행정의 방향에 대한 이의 제기나 각종 정책 등

소프트웨어적인 질문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고성군에 필요한 것은 교량을 새로 건설하고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다.

인구 3만명을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함양시키고, 외지

인들이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귀농·귀촌을 위한 전담창구 개설이나 '네비게이션 문제' 등은 참신하고 알찬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고성군은 명태가 많이

특히 신생아도 줄어드는데다 이들이 자라나 고등학교 졸업을 전후해서는 취업 등을 이유로 외지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3만명이 아니라 2만명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신생아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9시 중앙뉴스에 나올 정도의 과감한 지원을 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기업 등을 만들어 청년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고성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 읍면별 주민 간담회 유감

잡힐 때만 해도 인구가 지금의 두배를 넘는 6만5천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다. 그 당시 고성군에는 4차로 도로가 하나도 없었으며, 이렇다할 시설물도 거의 없었다. 이는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직결되는 것이 도로나 건물 등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 창출에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4>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최금란 칼럼

교육학박사,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이 그림의 아동은 '등교거부'로 의뢰되어 온 사례이다. 부모님과 상담한 결과 혼란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거나 혼란된 애착은 어떻게 형성 될까?(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분히 좋지 않은 어머니' 또는 '충분히 좋을 때와 그

렇지 않을 때가 번갈아 있는 어머니'를 가졌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불쾌한 기분은 엄청난 고통이며 압도되는 경험이라고 배운다. 추울 때 따뜻해질지 혹은 추운 채로 그냥 있을지 알 수 없고, 배가 고프더라도 음식을 먹게 될지 더 배고프게 될지 모르며, 화를 내면 배척당하거나 공격당할 지도 모른다. 즉, 이런 애착이 발달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나쁜 기분이란 어떻게든 회피해야 할 위험 신호라고 학습한다. 이런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외상 기억을 처리할 때 과거 경험에 따라 기억을 장벽 뒤로 밀어 넣어 위험을 제거하려는 대처방식을 보인다.

또한 위 아동은 지난 2년 전 시골에 갔다가 남자 중학교 학생에게 성추행 경험도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을 직면할 때 소화하거나 또는 장벽 뒤에 숨기는 것의 선택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따돌릴까 걱정되어 무서운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가족이 걱정하기

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가 "그런 말은 해 봤자 너만 힘들어!"라고 하면, 아이는 '이런 생각은 너무 나쁘고 무서워서 부모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면 아이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도 지지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기억처리를 단념한다.

이 아동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불신감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성추행의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등교거부증'으로 표출되었다.

부모는 단지 학교의 또래관계의 문제로 인해 등교거부한다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례이다. 에릭슨(Erikson, 1963) 발달이론의 첫 단계는 신뢰와 불신이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를 가진 유아는 누군가 자신을 돌봐 주며 세상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외상은 이런 시각을 바꾸어 정반대로 만든다.

이런 후유증은 외상 연구가 시작된 20세기 초에 밝혀졌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포탄 충격이라고 불렀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문헌에 포탄 공격을 받았던 군인들은 신이나 어머니를 자주 외쳤다

는 보고가 나온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계약이 깨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나를 돌봐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와 신, 당신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애착과 안전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아이들은 불안정하면 1차 애착대상의 위로와 보호를 찾는다. 동물원에 있는 걸음마기는 호랑이를 봐도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함께 있어 안전한 느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사건과 함께 애착 대상의 보호가 없다면 외상은 애착을 파괴한다.

외상으로 애착이 손상될 때 철수하는 아이들도 있고, 보호해 줄 만한 새로운 애착대상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갱단에 가입하는 아이들은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우린 서로 도움을 주고 지켜줘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와 같이 말한다.

이 아동은 가족미술치료(주1회 6번)를 통해 안정애착을 유도하였으며, 아동이 안고 있는 외상(성추행)은 개인미술치료(주1회 16번)로 진행하였다. 현재 이 아동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

#### ◇편집국에서

○...지난 19일 우수를 지나면서 초봄의 싱그러움이 지역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남아 있지만, 낮에는 바람 속에서 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머지 않아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날 것이다.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거진을 송강리에 주둔하고 있는 송강포대(375 A포대)가 거진중고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포대 창설 이후 민간과의 첫 자매결연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크다. 부대 장교들이 성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니 '민군화합'의 대표사례라 할만하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강원 다 01183 • 등록일: 2011년 1월20일 • 간별: 주간

•우 219-803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